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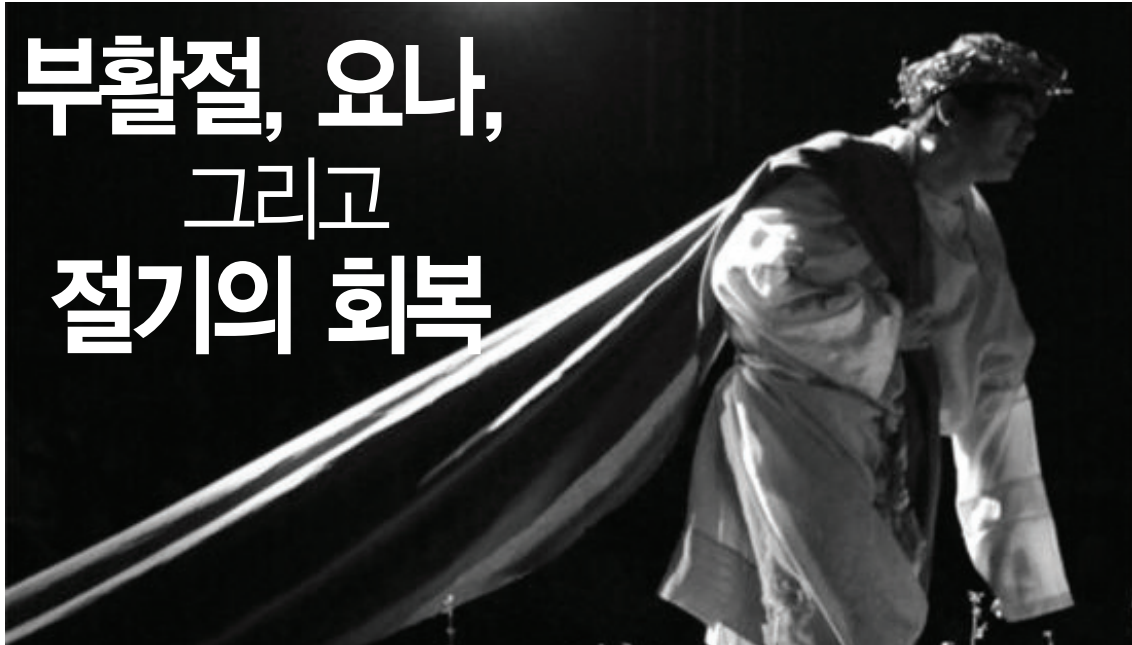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함즐함울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으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까지 아니하겠느냐...”

_ 욥 4:11

부활절, 요나, 그리고 절기의 회복



부활절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절기이다. 사진은 2012년 주님의교회 부활절 예배드라마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장면.

물고기 뱃속의 3일, 요나의 기적

지난 2월 24일, 박원호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오늘부터 전 교육부서에서 부활절까지 요나서를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예고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속죄일에 읽었으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12:39~40)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 전의 사흘을 요나에 비교하신 셈이니, 부활절 전 수난 주간에 요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일일 터이다.

새롭게 되새겨야 할 부활절의 의미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서 출발한다.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춘분 다음의 첫 번째 보름달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므로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서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부활절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절기이지만, 정작 부활절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달걀 정도가 아닐까?

부활절의 앞 뒤 절기는 기독교의 의미가 올곧게 담겨 있다. 부활절 전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의 행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 죄 없는 예수님이 극형의 상징이었던 십자

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그대로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준다.



절기의 회복 위한 부활절 행사

고난 주일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리고 사흘 동안의 죽음 이후 부활에 이를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오래 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해서 이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요나를 기억하는 일은, 그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기억하는 일이 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의 회복은 바로 그 절기의 정신을 되새기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교회의 2013년 부활절에는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부활절 예배는 작년에 이어 예배드라마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다음 수요일에는 1부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가 연주된다.

2012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던 예배드라마는 주님의교회 성도뿐 아니라, 한국 교단에서도 큰 주목과 반향을 받았고, 기독교방송(CBS)과 <기독교공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예배드라마는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 주제로, 요나와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대본에 의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예배드라마는 새벽 5시 30분 송파구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일부 소개되고, 오전 9시 30분에 1부가, 오후 12시 30분에 2부가 드러지며, 오후 5시에는 지역 주민과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드러질 예정이다. <함즐함울>

성령의 열매 잉태하는 2013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2013년 겨자씨 인도자 모임은 3, 6(수)~6, 26(수)까지 오전 - 11시(5층 제1집회실), 저녁 - 수요일에 후(본당)에 진행됩니다.

2013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2월22일~23일 1박2일에 걸쳐 남양주에 있는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되었다. 수련회 전에 이미 5주에 걸쳐서 2013년 신입겨자씨인도자 교육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올해 겨자씨, 겨자체, 겨자목을 인도하게 된 약 280여 명이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다. 첫째 날, 김연수 선교사가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선교전략”의 제목으로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했고, 둘째 날은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복된 신앙”의 제목으로, 15년간 이단 취재에 매달렸던 <교회와 신앙> 정윤석 기사를 통해 이 시

대에 이단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자들과 함께 한 뜨거운 기도와 교구목사들과의 만남, 그리고 둘째 날 겨자씨인도자들이 알아야 할 일들과 이미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단의 정체에 대해 나누면서 인도자로써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겨자씨인도자수련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는 240여 겨자씨의 인도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며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조정현 목사>



2013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280여 명의 인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2월22일~23일간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3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교회사가들의 기록과 마사다 항전



로마 총독 실바(Silva)가 이끄는 로마군대가 마사다를 포위하는 장면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교회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자. 먼저 <초대교회사>를 남긴 유세비우스(Eusebius, 260?~339?)는 이 예루살렘 함락의 전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스러운 사람들이 유대인의 수도와 유대 땅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죄를 범하였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그들 중의 사악한 세대는 참혹한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다. 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은 온 세상의 나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가해진 재앙은 최악의 것이었다.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로마군병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혹은 굶주림과 다른 참혹한 이유로 죽임을 맞이하였다.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믿고 도피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37?~100?)의 역사기록과 신약 성서의 내용이 일치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실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힘들다고 한다.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함락된 이유를 기독교와 사도들에 대한 정통 유대교 신봉자들의 박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의 군사들이 성전 정문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문에 달려 있던 은장식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목재부분이 드러났고 불길은 거침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

길은 삼시간에 성전 건물 벽과 통로를 타고 번져갔다. 불길 속에 타고있고 있는 성전 건물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 모두 소멸되고 말았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우두커니 서서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중략] 불길은 다음날 밤까지 계속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꺼번에 잿더미로 내려앉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불타올랐다. 다음날 티투스(Titus) 장군은 수하의 군사들에게 화재진압을 명령하였다. 군대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길을 폐쇄하도록 조치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자, 터전을 잃은 유대인 중 열심당원 약 천 명이 아이르(Eleazar ben Ya'ir)의 지휘에 따라 예루살렘 인근의 마사다(Masada)로 옮겨서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으로, 유대의 헤롯 대왕이 로마 속주 시절 침략에 대비하여 기원전 37년부터 31년까지 오지 사막에 요새로 건설한 곳이었다. 3년간 항쟁하던 그들은, 로마군대가 치밀한 군사작전을 구사하면서 보급선을 차단하고 공격거점을 위한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하였을 때, 가족들과 함께 967명이 집단 자결하고 말았다. 요세푸스는 마사다 전투에서 생존한 두 여인의 증언을 통해 로마 제국의 총독인 플라비우스 실바(Flavius Silva)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공격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 마사다는 지금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상징으로 남아있다.

로마군대의 예루살렘 함락은 많은 역사적, 종교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로 주 활동무대를 옮김으로써 유대교의 전통과 결별을 시작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종교에서 지중해의 종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초대기독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기독교인들이 요단강 건너 동북쪽에 위치한 펠라(Pella)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시작된 기독교 중심부의 이동은 결국 로마라는 새로운 기독교 중심지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 베드로에 의해 로마교회의 사도적 권위가 확립되었으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는 초대교회의 전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강찬 목사>

상담코너 <법률>

법 없이 살기?

“저는 법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하고 한 말입니다.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끼리 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기에 인간세상에서는 온갖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법의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채무를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적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야 불가피하고 어쩌면 마땅한 일이겠지만, 잘못도 없이 손해를 입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라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교회 법조선교팀에서는 이 상담코너를 통해 법률문제와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10시 30분 지하 대화의 방에서 법률 및 세무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셔서 법조선교팀 정해진 집사에게 보내주시면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입니다. <정혁진 집사 hjchung@jungjinlaw.com>

성경-한자로 풀어보기 <41회>

辭典的(사전적) 의미

- ①기독교 신자가 될 때 베푸는 儀式(의식). 종파에 따라 머리 위를 물로 적시기도 하고 머리에 물을 붓기도 하며 물에 몸을 잠그기도 함.
- ② 聖洗聖事(성세성사)

信仰的(신앙적) 의미

죄 씻음, 認證(인증), 기쁨부음 등을 의미한다. 물을 뿌리거나 물에 침수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入教(입교)하는 공식적인 認證儀式(인증의식)을 가리킨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赦(사)함 받는다는 약속의 표시였다. 예수께서는 물세례와 함

洗禮式 (세례식, baptism)

신입 성도들의 입교 및 세례식은 경건하고 진지하여 늘 은혜가 넘친다.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吟味(음미)해 보기로 하자.

개 심령의 참된 회개를 가져오는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셨다.

文字的(문자적) 의미

★洗(씻을 세) : 水(물 수)의 변형체 冫(삼수변)과 先(먼저 선)을 결합시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로 먼저 씻

어야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禮(예도 례) : 제기, 제사, 神(신)을 상징하는 示(보일 시, 제사 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豐(풍년 풍)을 결합시켜 <신전의 쟁상에 제물을 풍성히 차리고 제사 지낼 때 엄격히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예도이다>라는 의미의 문자가 되었다.

★式(법 식) : 만들다의 뜻이 있는 工(장인 공)과 화살, 무기, 도구를 상징하는 弋(주살 익)을 결합시켜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 때 있어야 하는 것이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라는 의미의 문자이다. <함술함술>



2013 부활절 예배드라마 포스터

2012년 한국 교회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예배드라마를 전 교인이 합심해서 진행, 뜻 있는 분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는 주님의교회는 2013년 부활절에도 전년에 이어 새로운 주제의 예배드라마를 준비중이다.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다. 청소년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공간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오직 헌신과 기도로 이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지난 1월 5일 첫 실무팀이 구성된 후, 100여 명의 관계자가 밤을 잊고 땀흘려 준비하고 있다.

예배드라마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요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번 예배드라마의 주제이다.

20대에서 60대까지, 연기 첫 경험 절반 넘어

드라마의 꽃은 역시 연기자. 30여 명의 연기자가 지난 1월부터 맹연습을 하고 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전체 연습을, 화요일과 토요일은 장별로 나뉘어서 연습을 진행한다. 저녁식사는 김밥으로 때운다. 연기팀장을 맡고 있는 손경숙 권사는 원래 음악 전공이지만, 16년 전 드라마선교팀으로 사역할 때 임동진 목사에게서 연기지도를 받아서 연기에 입문했고, 그때부터 성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극팀이 일부 참여하고는 있지만,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연기자 절반 이상이 대학생부터 식품공장 대표와 같은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이다. 장애우도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연기를 처음 하는 성도가 반이 넘는다. 연기적 발성도 되지 않고, 무대의 동선을 따르는 것도 영 어색하기만 하다. 하지만 열심히 손발을 맞추다 보면, “저절로 영적 충만을 느낍니다.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요”라는

고백이다. 연기팀 외에도, 무대미술, 의상, 조명, 소품, 음악, 홍보 등 많은 손길이 땀흘려 준비하고 있다. 찬양대의 코러스와 연주팀도 협력한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의상은 작년에 쓰던 것을 재활용한다. 빨고 다리고 고쳐서 이번 대본에 맞춘다. 교회 건물 내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던 장면도 없애고, 중요한 외부 장면은 미리 촬영한다. 작년의 경험은, 예산 절감에도, 연기 연습에도, 또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대본, 감동적 내용, 환상적 무대

이번 예배드라마에서 주목할 점은, 내용이 새롭다는 것이다. 대본도 이 예배드라마를 위해 문규호 전도사에 의해 새롭게 창작되었으며, 연기 연습과정을 통해 계속 수정되고 있다. “요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주된 내용입니다.” 요나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을 지낸 후 살아나온 선지자이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죄를 자복하면서 물로 뛰어들어 물고기에 먹힌 사람이다. 배는 어떻게 만들고, 도대체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될까?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깜짝 놀랄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고요? 많이 알려고 하시면 다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구 장로가 웃으면서 말한다. 시공을 넘나드는 초월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번의 예배드라마, 이 오랜 땀흘림의 결과를, 부활절에 함께 나눌 수 있다. <함글함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소개합니다 _수요 어린이 영어 예배

“나의 아버지의 집(My Father's House)”는 2년 전 영어사역팀에서 시작한 어린이 영어예배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지하 사랑나무실에서 드린다. 이 예배는 어린이들에게 다른 언어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경험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 영어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하는 것 보다 훨씬 크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예배의 이름인 “나의 아버지의 집(My Father's House)”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어린이 찬양곡의 이름이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노래한다. 이처럼 영어예배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비록 ‘영어’로 드릴 경우에도 정말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 영어가 부담이 되는 학원에서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재미와 배움의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영어예배를 통해 영어와 더욱 친숙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에 목적이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먼저 예배를 드린다. 영어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그 이후 각 반으로 나누어져 그날 설교말씀과 관련된 분반 활동을 한다. 각 반은 연령이나 영어의 수준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그룹 시간에는 각 반마다 선생님 두 분의 인도로 말씀과 관련된 재미난 활동, 영어 성경구절의 암송 혹은 신나는 게임 등을 한다. 이 외에도 수요영어예배에는인형극과 게임 나이트, 달란트 시장 등 특별 행사가 있으며, 크리스마스에는 성탄 발표 찬양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있다.

모든 수요어린이 영어예배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영어실력까지 늘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성도는 언제든지 호지선 전도사(choreographer@hot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영어사역팀 샘 웨딩튼 목사 글, 김은경 옮김>



영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어실력도 키운다



나이와 수준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로템나무

▶ '로템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주차안내와 축구



피택자 교육의 한 부분으로 주차 안내봉사를 하면서 주차 안내와 축구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축구를 11명이 하듯이 주차 안내도 혼자서 아닌 많은 집사님들이 팀으로 주차를 돕는다. 운동장에서는 7-8명이 입구부터 안 쪽 방향으로 차례로 간격과 위치를 지정해 차량을 유도한다. 이 과정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잘 연결된 패스에 의해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패스의 중요한 점은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선수의 태클에 넘어지면 서도 패스 받을 동료의 달려가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패스를 해야 팀의 목적으로 득점을 향해 갈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보다는 약간 멀고 불편하더라도, 안내를 존중하여 차량을 주차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패스의 기본 정신과 통하는 듯하다.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움직임,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은 주차 안내와 축구의 공통된 가치임과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작은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가끔 비나 눈으로 주차를 못해 운동장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를 배려하여 조금 수고롭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용수 피택장로>

반가운학교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반가운학교는 지역사회와 정신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과목, 외국어, 예체능, 논술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배웁니다. 현재 100여 명에 이르는 교회 안팎의 청소년들이 반가운학교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뜻있는 사역을 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 ▶ **필요한 과목** : 국어 / 영어 / 수학 / 과학 / 논술 등 학교 교과목
프랑스어 / 독일어 / 중국어 / 일본어 등 외국어 과목
피아노 / 성악 / 플루트 / 바이올린 / 연기 / 미술 등 예체능 과목

▶ **연락하실 곳** : ☎ 김복수 안수집사(010-3034-0123)

설만한 물가

자녀를 위한 기도

바람부는 세상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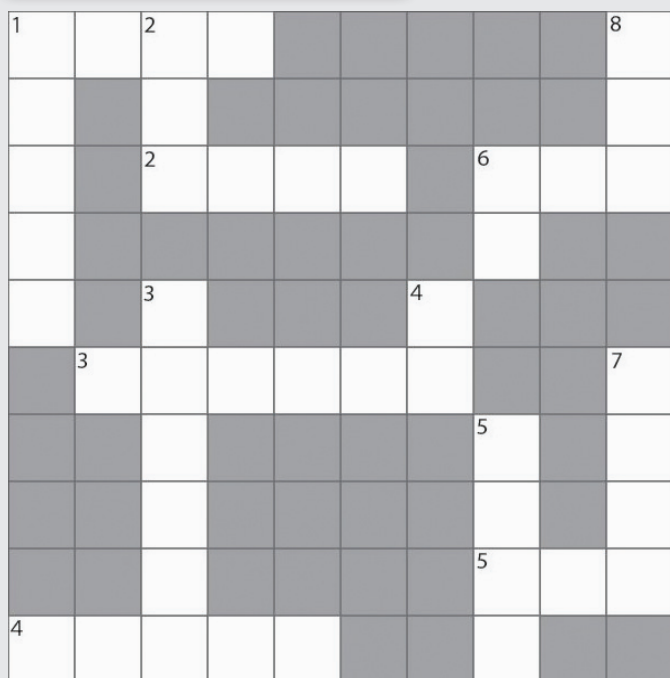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이게 하소서.
<고연호 집사>

주님의교회 카툰



말씀따라 가로세로 - 민수기편



말씀따라 가로세로는 '십자말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마련된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함글함글 팀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그 세번째로 '민수기' 편입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가로>** 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계기가 되었던 물
2.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아론의 후계자로 제사장이 된 사람
3. 출애굽 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의 수(아라비아숫자)
4.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일개월 이상된 레위인 남자의 수(아라비아숫자)
5.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장사지낸 곳
6. 서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 <세로>** 1. 레위인 중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 등을 담당한 종족
2. 출애굽 후 12지파 중 아셀 지파의 지휘관
3. 모압평지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의 수(아라비아숫자)
4.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했던 날 수(아라비아숫자)
5. 진영을 떠날 때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덮는데 사용한 것
6. 발람이 탔던 동물
7. 여호와와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와 진노를 돌이키게 한 아론의 손자
8. 이스라엘의 계수에 들지 않고 구별되어 제사장을 돕는 사람

<지난호 가로세로 정답>

- 가로 1. 사십일 2. 육십만 3. 만나와메추라기 4. 미리암 5. 영광 6. 스스로있는자
- 세로 1. 사백삼십 2. 일곱 3. 여호와와니시 4. 맥추절 5. 오홀리압 6. 광채 7. 이드로 8. 청색자색홍색

2013 부활절 예배드라마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그리고 나의 삶

이번 예배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 40:1-2)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를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배드라마에 참여한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가만히 놔두시면 참 좋겠는데...’ 십여 년 간 치매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니가 소천하시자 숨 쉴 틈도 없이 또 다시 아들의 발병이라니.... 겨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평지는커녕 또 다른 깊은 절벽 앞에 망연자실하는 내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어왔다고 자부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그런 나를 주님은 손잡아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꺼내어 치유하시고 품으시고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 김영림 권사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팀원들의 연습과정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현장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감동한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성도님들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전진희 권사

예배드라마의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훈련을 통하여 밀고 당기기가 우선 멈춰졌다. 시나리오를 받고 배역의 대사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나를 발견하였고 주님의 모습도 보았다.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어둠을 토해내는 것만이 어두운 삶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였다. 죄지는 사람들을 대신해 용서를 비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 김윤숙 집사



2013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통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오래된 짐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문규호 전도사



부활절 예배드라마에 같이 참여 하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자신이 없어 즉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할 죄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제 사고의 틀 속에 한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대사처리 능력도 월등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동관 집사

작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리허설을 하면서 본당 무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낯설지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때 ‘작은아씨들’에서 ‘에서 둘째 딸’ 조역을 했던 드라마 센타 무대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올해 두 번째로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드린다. 연평 불문 경험불문이라는 주보의 광고에 힘을 얻어 정년을 앞둔 우리 집 양반도 하겠다고 나서서 부부가 함께 연습하고 있으니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 조성숙 집사

연습 횟수가 거듭될수록,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는 설리를 느낀다. 메말라 있던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신 그 분께서 남은 기간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가 된다. 사순절을 맞아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라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다. - 청년부 강하은

부르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에



최방은 목사 가정, 안양아 사모, 최영은, 최서은, 최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의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지식적인 내용이 이제는 확신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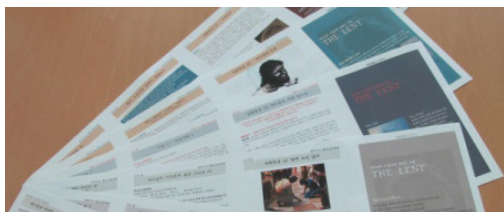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주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그때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나로 하여금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치 않도록 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신앙의 불모지인 최씨 집안에 정말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그 복음의 영역을 현재 더 넓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더 확신할 수 있었고 더욱 더 그 부르심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했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이 말씀이 내 마음 판에 불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힘이 들 때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도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각오가 나의 목회일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각오로 목회 일선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최방은 목사>

청년부 사순절 영성훈련



청년부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배당 앞을 사순절에 맞게 장식하고 매주 목상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함과 동시에 실천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주로 구성된 영성 훈련은 1주는 사순절 장식하기와 홀로 있음과 침묵하기, 2주는 하나님 임재연습과 말씀 먹기, 3주는 말씀과 교제하기, 4주는 절제와 나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기, 5주는 금식훈련 그리고 마지막 6주에는 그동안 했던 모든 영성훈련을 종합하여 훈련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모은 돈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김삼열 전도사>

교회 사역 일정

- 24(주) 종려주일, 입교 · 세례식
- 25(월)~30(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29(금) 성금요일, 성금요일예배(1~3시)
- 31(주) 부활주일, 송파구 부활절 연합예배(오전5:30)
1부예배(오전9:30), 2부예배(오후12:30)
3부예배(오후5시, 이웃생명 초청예배)
▶ 부활절 예배드라마로 진행

당회 소식 <3월 의결 사항>

- 주님의교회 파송선교사 규정 수정안을 받기로 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선교소식지를 통해 게재예정
- 장일형 장로, 김건우 청년을 주님의교회 견습선교사로 파송하되 장일형 장로는 자비량으로 하고, 김건우 청년은 협력선교사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 교회단신

예수친구사역 3기 1차 세미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친구사역 3기 1차 세미나(OT)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신앙”이란 주제로 2월15일 (금) 18시~16(토)11시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주님의교회 內 중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앞으로 3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제자의 도를 이어갈 ‘예수 친구 사역’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와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주님의 길 이어나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 듬뿍 받기를 다짐했다.

2013년 5기 늘푸른대학 개강



지난 3월 5일 (화) 2013년 제5기 늘푸른대학 입학식이 190여명의 학생과 박원호 담임목사를 비롯한 대학 강사, 스태프 등 모두 2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개최되었다. 늘푸른대학은 주님의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으로 만 65세 이상의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3월 말까지 3주간 추가 등록을 접수할 계획이다.

2013년 첫 새가족 양육 수료자 환영식



2013년 2월 24일 오후 3시 지하 식당에서 박원호 담임목사와 교구 목사와 시무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새가족 양육자 환영식이 열렸다. 90여명이 넘는 새가족들은 교구별로 표시된 자리에 앉아 주님의교회 새로운 등록교인이 되었음을 함께한 교구 목사와 장로들의 축하를 받고 주님의교회에서 은혜로운 믿음생활을 하기위한 귀한 사랑을 나누었다.

복지기금 전달식



주님의 교회는 지난 10일 주일 예배(2,3부) 때에 올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복지예산)을 송파구(박준희구청장)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그동안 교회는 무료급식, 죽배달, 특별구제, 늘푸른대학 및 가락분동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특히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 왔다. 이에 새벽교회 권사이기도 한 박준희 구청장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는 실천하는 진실한 섬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함울함울>